2017. 3. 29. (수) 언론보도

OBSNEWS

2017년 03월 28일 (화)
종합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사업 탄력

이재상|
【 앵커멘트 】
경기도는 그동안 민통선 내에 유일한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안보관광지로 개발하려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땅이 국방부 소유였기 때문인데요, 마침내 해결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07년 미군이 떠난 뒤 안보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캠프 그리브스.

DMZ 남방 한계선에서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안보관광지로써 활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한류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술하/말레이시아 관광객
"이곳이 3·8선이 갈라져 있고 군사보호구역이라 무척 긴장했는데, 군복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니 멋진 추억과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2013년부터 캠프 내 생활관 일부를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해 숙박이 가능한 DMZ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했지만 국방부 소유인 캠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2년동안 난항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역사공원 조성사업에도 물꼬가 트였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부지와 인근 경기도 소유 토지를 맞바꾸는 합의각서가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359억 원을 투입해 병영·생태체험관과 역사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역사공원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 전화싱크 】 유충호/경기도 DMZ보전팀장
"내년부터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문화시설, 안보체험문화예술지구, 자연경관휴양지구, 창작예술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매달 한 번씩 민관군 협의회를 열고 캠프그리브스를 제3땅굴과 임진각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안보·생태·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정재한>

이재상 leejs@obs.co.kr

14.4 X 19.3 cm

경인일보
2017년 03월 29일 (수)
21면 수도권

파주시, 임진강 곤돌라 민간사업자 '삼호' 선정

파주시임진각~캠프 그리브스를 잇는 곤돌라 설치사업(2월 2일자 5면 보도)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임진강 횡단 곤돌라 민간사업자로 '삼호'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삼호와 오는 5월 협약을 체결한 후 8월 착공해 2018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임진강 남쪽 임진각 관광지와 안보체험관인 임진강 북쪽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 간 810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캠프 그리브스쪽 승강장에 대합실과 커피숍은 물론 전망대와 생태체험학습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에서 2㎞ 남짓 떨어져 있으며 1953년 7월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2007년 국방부에 반환돼 현재 경기관광공사가 안보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곤돌라가 설치돼 캠프 그리브스와 임진각 관광지를 연결하면 연간 700만명인 관광객이 1천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0.0 X 10.5 cm

경기일보
2017년 03월 29일 (수)
02면 종합

내일 'DMZ포럼'…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

국내·외 DMZ 전문가가 모여 경기도 DMZ 일원의 중장기 통합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올해 첫 DMZ 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문화관광·지역개발·생태환경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UNCCD(국제사막화방지협약), EAAFP(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 BfN(독일연방자연보전청) 소속 국외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ESP아시아사무소 이나무 소장이 2017년도 DMZ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국립생태원 박은진 생태보전연구실장이 DMZ 일원 중장기 계획을, DMZ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이 연천생태자원조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전체토론에서는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의 사회로 2017년도 DMZ 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 DMZ 일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과 토론을 벌인다.

도는 DMZ 포럼을 통해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장기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4차례의 DMZ 포럼을 ESP아시아사무소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과 지역상생 국내외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일형기자

10.9 X 10.2 cm

중부일보
2017년 03월 29일 (수)
01B면 종합

DMZ 포럼 첫 회의 30일 파주서 열린다

중장기 통합관리 정책방향 모색

국내외 DMZ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도 DMZ 일원의 중장기 통합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DMZ 포럼'의 올해 첫 회의가 파주에서 열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0일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올해 첫 '생태계서비스기반 DMZ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경기도DMZ 포럼(이하 DMZ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0월 위촉된 DMZ 포럼위원과 중앙부처 및 도·시군 DMZ 업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DMZ 포럼위원으로는 문화관광·지역개발·생태환경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UNCCD(국제사막화방지협약), EAAFP(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 BfN(독일연방자연보전청) 소속 국외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특히 2017년도 DMZ 포럼은 총 4차례에 걸친 전체포럼과 1차례의 국외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ESP아시아사무소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 운영 주체로 함께 참여하게 돼 생태계보전과 지역상생 국내외 협력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성기자

11.1 X 11.9 cm

경기신문
2017년 03월 29일 (수)
02면 종합

DMZ 가치보존·발전 고민하다

전문가 등 참여 'DMZ 포럼' 내일 파주 임진각서 열려
포럼 운영·중장기 계획 연천생태자원조사 등 발표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DMZ 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다고 경기도가 28일 밝혔다.

포럼에는 문화관광·생태환경 전문가와 중앙부처, 도와 시·군 DMZ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나무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 아시아사무소 소장이 '2017년도 DMZ 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이 'DMZ 일원 중장기계획'을,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이 '연천생태자원조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전체토론에서 박연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소장의 사회로 '2017년도 DMZ 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경기도의 DMZ 일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DMZ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MZ 포럼은 경기도가 DMZ 일원의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이연우기자 27yw@

17.9 X 9.6 cm

기호일보

2017년 03월 29일 (수)
03A면 종합

DMZ 일대 중장기 발전 모색

임진각 생태관광지원센터서 도, 올해 첫 'DMZ포럼' 개최

경기도는 30일 오후 2시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올해 첫 'DMZ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중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DMZ 포럼위원, 중앙부처 및 도, 시·군 DMZ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나무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 아시아사무소장이 '2017년도 DMZ 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이 'DMZ 일원 중장기계획'을,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장이 '연천생태자원조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전체토론에서 박연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2017년도 DMZ 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올해 DMZ 포럼은 총 4차례에 걸친 전체포럼과 1차례의 국외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ESP 아시아사무소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게 돼 생태계 보전과 지역상생 국내외 협력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DMZ 포럼은 도가 DMZ 일원의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4.8 X 14.3 cm